



미혼남녀의 결혼의향 비교분석*

김 정 석**

결혼은 그 자체로서 매우 중요한 주제이기도 하지만 최근에는 저출산의 주요원인으로 언급되면서 학문적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에 대한 체계적이고 분석적인 연구는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이 연구는 <2005년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 자료를 이용해 미혼남녀의 결혼의향을 분석하고 있다. 미혼남녀전체를 대상으로 로짓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이들의 인구학적 특성, 경제상황, 가구 및 가족특성, 성과 혼전동거에 대한 태도 등이 통제된 상황에서도 남성보다는 여성에게서 결혼을 하겠다는 비율이 낮게 나타났다. 한편 남녀별 로짓회귀분석의 결과에 의하면 취업, 가구형태, 성과 혼전동거태도 등의 효과가 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취업의 경우, 미혼남성의 결혼의향은 높이지만, 미혼여성에게서는 유의미한 효과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 같은 결과는 여성의 경제적 기반과 결혼에 대한 두 가지 주요 이론인 경제독립가설과 경력진입모형 모두와 거리가 있는 것이다. 한편, 독립가구거주와 성 및 혼전동거에 대한 개방적 태도의 효과는 미혼남성에게 발견되지 않지만 미혼여성에서는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난다. 성에 따른 이상의 변수들의 차별적인 효과는 미혼에서 결혼으로 이행하는 과정과 동기가 성에 따라 다르게 작동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결혼에 관한 이론적 논의와 경험적 연구에서 이러한 남녀간 차별성이 반영될 필요성이 있다.

핵심단어: 결혼태도, 결혼요인, 결혼의 성별차이

I. 들어가는 말

현재 한국사회에서 결혼은 여전히 가족을 형성하는 주요 사건이며, 개인과 그들 가족의 안녕과 복지에 지대한 영향력을 갖고 있다. 따라서 결혼수준과 결혼행태 변화는 그 자체로서 매우 중요한 주제가 될 수 있다. 근래에는 결혼을 늦게

* 이 논문은 2005년 정부(교육인적자원부)의 재원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KRF-2005-078-BS0004). 이 연구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해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감사드린다.

** 동국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하거나 하지 않는 만혼과 비혼 현상이 저출산의 주요 원인으로 인식되면서(예. 김태현 외, 2005; 은기수, 2001) 결혼에 대한 사회적, 학문적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에 대한 체계적이고, 분석적인 연구는 매우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 이 연구는 최근에 이루어진 대규모 사회조사자료를 이용해 미혼남녀의 결혼의향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결혼과 이를 둘러싼 사회집단간 차별성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Cherlin, 2004; Coontz, 2004; Goldstein & Kenney, 2001; Retherford, Ogawa & Matsukura, 2001; Seltzer, et al., 2005; Sweeney, 2002)에 의하면, 결혼은 개인행위자를 둘러싼 사회적 변화 그리고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행위자들의 선택차이로 접근가능하다. 결혼수준과 행태변화를 가져오는 주요한 사회적 변화로는 결혼 및 가족생활의 의식과 태도변화, 여성의 교육수준향상과 취업증가, 결혼시장의 구조와 기능변화, 혼전성관계의 기회확대, 결혼안정성 감소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거시적 변화는 개인의 결혼기회구조에 변화를 초래하는 동시에 개인들이 결혼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혜택(benefit)과 비용(cost)을 변화시키게 되는데, 대체로 결혼이 가진 독특한 가치를 하락시키는 방향으로 작동한다.

이 연구에서는 이상에서 언급된 결혼의 몇 가지 요인을 중심으로 미혼자들의 결혼의향을 접근하면서, 남녀간 차이에 주목하고자 한다. 기존의 이론적 논의(예. Seltzer et al., 2005)에서 강조되고, 다양한 경험적 연구(예. Blau, Kahn, & Waldfogel, 2000; Yu Xie et al., 2003)에서 발견된 바와 같이 결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남녀간에 차이를 보일 수 있다. 특히 교육수준, 취업여부, 소득 등으로 대표되는 경제적 기반이 갖는 효과는 시점, 자료, 분석기법에 관계없이 남성들의 결혼전망에 긍정적으로 나타나지만, 여성들의 경우에는 분석수준에 따라 다른 결과를 보이고 있다(Sweeney, 2002). 즉, 여성들의 경제적 기반과 결혼과의 관계는 집합적 수준에서는 대체로 부정적인 관계로 나타나지만, 개인자료에 기초한 시계열적 연구들에서는 관계가 없거나 오히려 긍정적인 관계로 나타나는데 이 같은 현상은 집합적 수준과 개인적 수준에서 해당 변수들이 다르게 작동하기 때문이다(Oppenheimer, 1997).

경제적 기반이 갖는 남녀간의 차별적 효과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개인의 경제 상황은 결혼에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으며, 이 연구에서도 분석대상이 되고 있다. 결혼과 경제상황에 관한 이론적 전망은 베커(Becker, 1981)의 성역할 전문화 모형이론(gender role specialization theory)과 그에 따른 경제자립가설(economic independence theory), 그리고 오펜하이머(Oppenheimer, 1988;

1997)의 경력진입모형(career entry model)이나 배우자 탐색기간연장 모형(extended spouse search model)에 따라 달라진다. 남녀간의 성별분업은 미혼보다는 결혼상태에서 보다 생산적이 된다는 전제에서 출발한 베커의 모형은 경제전망이 밝은 남성일수록 결혼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한다. 한편, 경제전망이 밝은 여성의 경우에는 오히려 결혼의 가능성을 낮출 것으로 기대되는데, 이는 여성의 경제력향상이 배우자에 대한 경제의존을 감소하고, 이는 다시 결혼동기를 약화하기 때문이다. 한편 오펜하이머의 이론은 성역할과 소비유형의 변화에 따라 남성뿐 아니라 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노동시장에서의 전망이 중요시되면서 경제적 자원이 많은 여성일수록 결혼시장에서 매력을 가지며 보다 나은 위치를 차지하게 된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이 이론에 따르면 경제전망이 밝은 여성일수록 (비록 결혼을 늦게 하더라도) 결혼을 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연구에서는 결혼의 경제적 기반을 취업여부와 부채여부로 접근하며, 교육수준은 인구학적 통제변수로 설정하고자 한다.

개인의 결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 외 변수로 이 연구에서 다루는 것은 결혼의 안정성에 대한 인식이다. 이 연구에서는 개인의 가족 중에 이혼을 경험한 사례여부를 통해 이를 접근하고 있다. 이혼의 가능성은 세대간에 전승될 뿐 아니라(Diekmann & Engelhardt, 1999; McLanahan & Bumpass, 1988), 가족성원중에 이혼을 경험한 사람들은 결혼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지만 미혼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Shostak, 1987). 따라서 부모와 형제자매 중에 이혼경험사례는 결혼에 대한 믿음과 매력을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가족배경과 함께 현재 가족 및 가구상태 또한 결혼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여기에는 부모의 생존여부와 독립가구형성여부가 포함될 수 있는데, 우리사회에서는 젊은 세대에 비해 그 부모세대가 결혼의 필수성을 보다 많이 인식하며 그 자녀들에 심리적 압박을 가할 수 있다. 또한 독립가구형성은 부모로부터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을 뿐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어느 정도의 독립을 의미할 수 있다. 따라서 독립가구에 사는 개인들에 대한 부모의 영향력은 제한적인 것으로 이해된다.

결혼이외의 성관계를 가질 기회의 확대와 비제도적인 남녀간 결합(union formation)의 확산 또한 결혼이 가진 가치와 혜택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논의된다(Casper & Bianchi, 2002). 이러한 요소들은 혼전 성관계와 혼전 동거에 대한 태도로 접근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개인들의 결혼의향은 연령과 거주지역 등에 따라서도 차이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가령, 혼인연령규범이 지속되고 사회적으로 결혼이 이루어지는 대표적인 연령이 관찰되는 한, 이

를 초과한 연령에서 결혼을 기대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거주지역의 경우도 도시와 농촌간의 차이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는데, 농촌남성의 결혼시장이 열악한 상황에서 농촌에서의 결혼의향은 다소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 이 연구에서는 교육수준, 연령 및 거주지역을 통제한 상황에서 개인들의 경제적 상황, 가족 및 가구특성, 성과 동거에 대한 태도 등에 따라 미혼남녀의 결혼의향이 어떻게 다른지를 분석의 초점에 두고 있다.

II. 연구방법 및 자료

이 연구에서 이용하는 자료는 2005년 5월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실시한 <전국 결혼 및 출산동향조사>이다. 이 조사는 전국에서 표본 추출한 약 8000 가구에서 만20세에서 만44세까지의 미혼남녀와 기혼여성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조사대상인 미혼남녀 2670명중에서, 해당 변수에 결측치를 보인 30사례를 제외한 2640사례(미혼남성 1446사례; 미혼여성 1194사례)를 분석하고 있다. 다음의 <표 1>은 이 연구에서 사용하는 변수들과 사례들의 분포를 남녀별로 제시하고 있다.

결혼의향은 미혼자 조사표 문항 “귀하는 결혼할 생각이 있습니까?”를 통해 측정하였는데, 이에 대한 응답에서 “결혼할 생각이 있다”를 결혼의향이 있는 경우로 그 이외 응답을 결혼의향이 없는 경우로 간주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의 결혼의향유무는 구체적으로 결혼의사를 밝히고 있는가를 중심으로 구분하고 있다. 앞의 <표 1>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남녀전체 중에서 결혼의향을 가진 미혼자는 78.8%이지만 미혼남성(82.7%)보다는 미혼여성(74.1%)에게서 그 비율이 낮게 나타나고 있다.

결혼의향분석을 설명하기 위한 변수들은 크게 네 집단으로 구분하고 있다: 인구학적 특성, 경제적 상황, 가구 및 가족특성, 성과 결혼에 대한 일반태도. 우선 인구학적 특성에는 성(전체미혼자 분석에서), 교육수준, 거주지역, 현재 연령 등이 포함된다. 교육수준에서는 고등학교이하를 준거로 삼는 한편, 대학교이상을 대학교와 대학원으로 세분하였다. 이는 미혼남녀 중에서 중학교 이하의 학력을 가진 사례는 극히 드문 반면, 대학원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점에 기인한다. 또한 현재 학력이 급상승하는 가운데, 대학원 교육을 위해 결혼을 미루는 사례가 적지 않을 것이라는 현실성을 반영한 것이

다. 앞의 <표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남녀전체 중에서 고등학교 이하의 학력을 가진 사람들은 29.8%에 지나지 않고, 그 이외는 전문대학교 이상의 학력을 가진다. 또한 대학원을 다닌 사람들도 3.2%이다. 남녀별로 살펴보면, 대체로 남성들보다 여성들의 학력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1> 변수들과 사례분포

변 수	남녀전체	남자	여자
	비율/평균	비율/평균	비율/평균
사 례 수 (명)	2640	1446	1194
결혼의향유무(1=있음; 0=없음)	78.8%	82.7%	74.1%
성(1=여성; 0=남성)	45.2%	---	---
교육수준			
고등학교이하	29.8%	34.9%	23.6%
전 문 대 학	25.2%	21.8%	29.2%
대 학 교	41.8%	40.1%	43.8%
대 학 원	3.2%	3.1%	3.4%
거주지역(1=동; 0=읍면)	92.7%	91.7%	93.8%
연 령			
35 - 44세	7.6%	10.1%	4.6%
30 - 34세	14.9%	18.4%	10.6%
25 - 29세	31.8%	33.0%	30.2%
20 - 24세	45.7%	38.4%	54.6%
취업 및 학생여부			
취 업	54.9%	52.5%	57.9%
비 취 업	18.0%	17.9%	18.1%
학 생	27.1%	29.5%	24.1%
개인부채유무(1=있음; 0=없음)	13.2%	16.0%	9.7%
단독가구여부(1=예; 0=아니오)	16.4%	17.8%	14.7%
아버지생존여부(1=생존; 0=사망)	83.5%	81.4%	85.9%
어머니생존여부(1=생존; 0=사망)	95.0%	94.4%	95.8%
부모이혼경험(1=있음; 0=없음)	9.2%	9.0%	9.4%
형제자매이혼경험(1=있음; 0=없음)	3.1%	4.0%	2.1%
성관계와 동거에 대한 개방성	4.0(1.5)	4.3(1.4)	3.6(1.5)

주: ()안의 수치는 표준편차

거주지역은 동과 읍면지역으로 구분하였는데, 분석사례의 92.7%가 동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성들에게서 동 거주비율이 약간 높게 나타나고 있다. 동 거주 비율이 이 같이 높은 것은 오늘날 농어촌에 젊은 연령층이 매우 적다는 점을 반영하고 있다. 연령대는 현재의 만연령을 4개의 집단으로 재구성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소수를 차지하는 40-44세 집단은 하위 연령 집단인 35-39세와 통합하여 한 집단으로 구성하였다. 연령별 분포에서는 미혼 여성에 비해 미혼남성들이 고연령층에 상대적으로 더 많이 집중되어 있다. 따라서 남성들의 평균연령이 여성들보다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결혼의향은 연령에 따라 직선적인 감소 혹은 상승효과를 보인다기 보다는 일정연령을 중심으로 상승 및 감소를 보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범주형으로 구성하고 있다.

이상의 인구학적 특성 다음으로는 경제활동상태 및 부채유무 등으로 이루어진 경제 상황을 고려하였다. 본 분석에서의 경제활동상태는 취업여부와 교육상태의 조합으로 구성하였다. 그 이유는 상당수의 미혼자들이 아직 학교에 재학중이거나 휴학중인 상태이며, 이들이 결혼을 하기 위해서는 교육을 먼저 마칠 것이라는 예상 때문이다. 즉, 미혼자 중 학생들을 비취업자로 구분하여 취업여부에 포함하는 것은 결혼계획을 분석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따라서 본 분석에서의 경제활동상태는 학생이 아니면서 취업한 미혼(취업), 비취업중인 미혼(비취업) 및 재학생과 휴학생(학생)으로 나누고 있다. 전체 미혼자 중에서 취업자는 54.9%, 비취업자는 18.0%, 학생은 27.1%를 차지하며, 학생비율은 미혼여성보다는 미혼남성에게서 조금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경제적 특성의 또 다른 변수는 부채유무로 개인의 부채유무를 측정하고 있다. 전체미혼자 중에서 개인부채가 있는 비율은 13.2%이며, 미혼여성보다 미혼남성에게서 그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 이 외에 개인의 소득 또한 주요한 경제적 특성이 될 것이지만 분석대상의 상당수가 학생이라는 점을 들어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가구 및 가족특성으로는 현재 거주가구유형, 부모생존여부, 부모이혼경험, 형제자매이혼경험 등이 포함되었다.¹⁾ 현재 가구유형은 미혼자가 단독가구나 비혈연동거가구(이하 독립가구)를 형성하는지 여부를 측정하고 있다. 이는 부모와 동거하지 않고 따로 떨어져 사는 경우 결혼에 대한 부모로부터의 압박을 좀 덜 받거나,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하려는 의지가 강한 상황을 염두에 둔 것

1) 가족구성의 효과를 보다 적절히 파악하는 데에는 미혼 남녀의 형제순위에 대한 정보도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부모가 장남과 장녀의 결혼에 보다 적극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주어진 자료에는 형제순위정보가 없기 때문에 이를 분석에 포함하지 않고 있다.

이다. 전체 미혼자 중에서 독립가구에 거주하는 비율은 16.4%이며, 미혼여성 보다는 미혼남성에게서 높게 나타난다. 부모의 생존여부는 아버지와 어머니 각각의 생존여부를 측정하였으며, 이 또한 부모가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보다 결혼에 대한 더 많은 고민을 하게 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이다. 대체적으로 미혼자 대부분의 부모가 생존하고 있지만 어머니의 생존비율이 아버지의 생존 비율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부모의 이혼경험과 형제자매의 이혼경험은 가족성원 중에 이혼이나 별거한 사례가 있는 경우 결혼에 대하여 부정적인 시각을 가질 가능성을 고려한 것이다. 전체미혼 중에서 부모가 이혼을 경험한 비율은 9.2%에 이르며, 형제자매가 이혼을 경험한 비율은 3.1%이다.

성과 결혼에 대한 일반적인 태도로는 여러 가지 측정문항 중에서 결혼과 무관한 성관계에 대한 찬성도(개방적 성태도: 결혼과 관계없이 성관계를 가질 수 있다)와 혼전동거 찬성도(남녀가 결혼할 생각이 있다면 먼저 함께 살아보는 것도 좋다) 두 가지 문항의 합을 이용하였다. 이 두 문항은 성과 결혼에 대한 일반적 태도를 측정하는 여러 문항들 중에서 결혼의사와 가장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는 판단과 함께 통계적인 상관성도 서로 매우 높게 나타나기 때문에 선택되었다.²⁾이 같이 구성된 성과 결혼에 대한 일반적인 태도는 1점부터 7점까지 그 값을 가지며, 점수가 높을수록 성에 대하여 개방적이며 혼전동거에 대한 찬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Ⅲ. 결혼의향 다원분석: 미혼남녀비교

결혼의향유무에 대하여 남녀전체와 남녀별로 로짓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의 <표 2>와 같다. 여기서 로짓은 결혼을 하지 않겠다는 응답에 대비해 결혼을 하겠다는 응답의 로그오즈(log-odds)이다. 우선 인구학적 통제변수들의 효과를 살펴보면, 거주지역을 제외한 성, 교육수준, 연령 등이 결혼의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남녀전체를 분석한 결과를 통해 결혼의향의 성별 차이를 살펴보면, 미혼남성에 비해 미혼여성들의 결혼의향이 매우 낮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여성변수의 계수값 ($b=-0.759$; $\exp(-0.759)=0.468$)은 로짓회귀모형에 동원된 조건들이 동일하다면 결혼의향을 가진 여성들은 남성들의 절반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미혼남녀의 결혼의향은 이 연구모형

2) 이 두 측정항목간의 상관계수값은 0.551로 다른 항목간의 상관계수값보다 훨씬 높게 나타난다.

에서 제시된 다양한 변수들을 통제한다 하더라도 여전히 큰 차이를 보인다.

성과 더불어 교육수준 또한 결혼의향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대체로 교육수준이 높은 미혼자들일수록 결혼할 의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 2〉 결혼의향에 대한 남녀별 로짓회귀분석결과

	남녀전체			남자			여자		
	b	s.e.	exp(b)	b	s.e.	exp(b)	b	s.e.	exp(b)
상수	0.730	** 0.341	2.074	0.492	0.468	1.636	0.102	0.526	1.108
성 (준거:남성)	-0.759	*** 0.106	0.468	----	----	----	----	----	----
교육수준(준거:고등학교이하)									
전문대학	0.455	*** 0.141	1.575	0.652	*** 0.220	1.920	0.307	0.191	1.359
대학교	0.368	*** 0.131	1.445	0.545	*** 0.193	1.725	0.207	0.183	1.230
대학원	1.044	*** 0.357	2.840	1.620	*** 0.624	5.051	0.635	0.459	1.887
지역(준거:농촌)	0.067	0.187	1.069	-0.215	0.269	0.807	0.363	0.270	1.438
연령대(준거: 35-44세)									
30-34세	0.868	*** 0.197	2.383	0.767	*** 0.242	2.153	1.012	*** 0.356	2.752
25-29세	1.087	*** 0.187	2.967	0.983	*** 0.236	2.673	1.179	*** 0.331	3.250
20-24세	1.060	*** 0.199	2.885	1.081	*** 0.264	2.947	1.102	*** 0.340	3.010
취업 및 학생여부(준거:취업)									
비취업	-0.330	*** 0.126	0.719	-0.5554	*** 0.182	0.575	-0.134	0.179	0.874
학생	-0.096	0.153	0.909	-0.359	0.245	0.698	0.075	0.201	1.077
개인부채유무	-0.078	0.147	0.925	-0.240	0.190	0.787	0.119	0.235	1.126
단독가구여부	-0.138	0.134	0.871	0.036	0.192	1.036	-0.324	* 0.191	0.723
아버지생존여부	-0.083	0.140	0.921	0.093	0.188	1.098	-0.281	0.215	0.755
어머니생존여부	0.285	0.211	1.329	0.246	0.287	1.279	0.322	0.318	1.380
부모이혼경험	-0.259	0.161	0.772	-0.190	0.240	0.827	-0.298	0.222	0.742
형제자매이혼경험	-0.358	0.254	0.699	-0.383	0.312	0.682	-0.233	0.458	0.792
성과 혼전등거태도	-0.090	*** 0.035	0.914	0.010	0.053	1.010	-0.165	*** 0.047	0.848
chi 상승 값(df)	138.296 (17)			75.684 (16)			52.490 (16)		

그러나 이 같은 교육수준의 효과는 남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미혼남자들의 경우 교육수준은 결혼의향과 정적인 관계, 즉 교육수준이 높은 남자일수록 결혼의향이 있는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반면, 미혼여성들에게서는 교육수준과 결혼의향간의 유의미한 관계는 발견되지 않는다. 이는 미혼남성들과는 달리 미혼여성들의 결혼의향은 교육수준과는 무관하다는 뜻이 된다. 한편, 결혼의향에 있어 거주지역의 효과는 미혼남녀 어디에서도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

현재 연령은 결혼의향과 유의미한 관계를 가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대체로 연령이 낮을수록 결혼할 의향을 가질 확률이 높다. 이러한 연령효과는 미혼 남녀 모두에게서 발견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령효과의 크기는 남녀 별로 어느 정도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준거집단인 35세-44세에 대비한 연령효과는 여성들에게서 더 높게 나타난다. 이는 곧 미혼남녀 모두 젊은 층일수록 결혼할 의향을 가질 가능성이 크지만, 그러한 가능성은 여성들에게서 더 크다는 뜻이다. 이를 바꾸어 말하자면 미혼남성에 비해 미혼여성들은 나이가 많아질수록 결혼할 생각이 적어진다는 것이다.

경제상황 변수들 중에서 부채유무는 결혼의향과 유의미한 관계를 갖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지만, 취업여부는 결혼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미혼자 전체를 분석대상으로 하였을 때, 취업자들에 비해 비취업자들이 결혼할 의향을 가질 확률이 낮게 나타나는 한편($b=-0.330$), 취업자와 학생들 간의 유의미한 차이는 발견되지 않는다. 취업자와 비취업간의 차이는 미혼남성에게서만 발견되는 것으로, 미혼여성에서는 관찰되지 않고 있다. 즉, 미혼남성들 중에서 비취업자들은 취업자들에 비해 결혼할 의향을 가질 확률이 낮다 ($b=-0.554$). 반면, 미혼여성들 중에서는 취업자, 비취업자, 학생들 간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는다. 남녀에 따른 취업의 차별적인 효과는 교육수준에서 발견된 남녀의 차별적 효과와 흡사하다.

미혼남성들에게서 발견되는 결혼의향에 대한 취업의 효과는, 직장이 결혼의 전제조건으로 작용함을 보여준다. 한편, 미혼 여성의 취업이 결혼의향에 유의미한 효과를 보이지 않는 점은 흥미롭다. 이 결과에 의하면, 여성 취업이 결혼과 부정적인 관계를 가진다는 경제독립가설은 지지를 받지 못한다. 이와 동시에, 경제적 자원이 많은 여성일수록 (비록 결혼은 늦더라도) 결혼할 가능성이 높다는 경력진입모형의 기대 또한 만족스런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현재의 미혼여성들에게서는 두 가지의 상반된 전망이 함께 존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편, 미혼 여성들의 경우는 결혼에 앞서 반대

시 자신의 직장을 가져야 한다는 남성들과는 달리, 결혼과 취업을 별개로 생각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만약 그러하다면, 미혼여성들에게서 취업여부는 결혼 설명요인으로서의 중요성을 상실하게 될 것이다.

가족 및 가구특성에서는 독립가구여부만이 미혼여성에게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효과를 나타낼 뿐 부모생존, 부모이혼경험 및 형제자매이혼경험 등의 변수들은 효과를 보이지 않고 있다. 독립가구여부 효과를 살펴보면, 혼자 살거나 비혈연과 동거 중인 미혼남성들과 그렇지 않은 남성들간에 결혼의향 차이는 발견되지 않는다. 반면, 미혼 여성들 중에서는 가족과 떨어져 혼자 살고 있거나 친구들과 함께 살고 있는 경우 결혼할 의향을 가질 확률이 낮게 나타난다 ($b=-0.324$). 이는 단독가구 형성의 의미가 남녀별로 다를 수 있음을 보여준다. 미혼 남성들의 경우 교육이나 직장 등의 이유로 일시적으로 가족을 떠나 단독가구를 형성한다면, 미혼 여성들의 경우는 이보다 훨씬 복잡한 의미를 지닌 것으로 이해된다. 미혼여성의 단독가구 형성 자체가 현재 가족으로부터의 독립 뿐 아니라 앞으로의 생활에서도 자신만의 독립적인 생활을 추구하기 위한 것일 수 있다. 한편, 교육이나 직장 등의 이유로 일단 혼자 살거나 친구들과 함께 살면서 결혼보다는 독신 생활에 더 큰 의미를 부여한 결과일 수도 있다.

성과 혼전 동거에 대한 개방적인 태도와 결혼의향간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남녀별 차이는 뚜렷하다. 미혼 남성들의 경우 성과 혼전 동거에 대하여 개방적인 태도를 가진다 할지라도 그것이 결혼의향에 차이를 가져오지는 않고 있다. 반면, 미혼여성들의 경우 성과 혼전동거에 대하여 개방적인 태도를 가질수록 결혼의향을 가질 확률은 낮아지고 있다. 이는 남성들이 성과 혼전동거에 대하여 가진 태도는 자신들의 결혼과는 무관하지만, 여성들의 태도는 자신들의 결혼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IV. 맺음말

결혼은 개인의 삶과 행위양식에 큰 변화를 가져오는 주요 사건으로 그 자체가 매우 흥미롭고 중요한 주제가 되어 왔다. 최근에는 만혼이나 비혼 등이 출산하락의 원인으로 주목받으면서 결혼에 대한 이해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특히, 혼외출산에 대한 사회적 인내도가 낮은 우리 사회에서는 대부분의 출산이 결혼한 부부에게서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³⁾ 따라서 출산을 하기 위해

결혼을 한다고 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출산을 위해서는 결혼이 우선된다고 볼 수 있다. 저출산의 전제조건으로서 결혼에 대한 사회적, 학문적 관심의 고조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결과물은 부족한 실정이다. 이 연구에서는 미혼남녀들의 결혼의향과 그에 대한 요인들이 어떻게 다른지를 분석함으로써 결혼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하였다.

결혼과 가족에 대한 기존 연구들에 의하면, 결혼수준과 결혼행태는 다양한 사회경제적, 인구학적, 경제적, 문화적 요인들에 의해 변화하고 차이를 보인다. 이 연구에서는 성, 교육수준, 거주지역, 연령을 포함한 인구학적 특성, 경제 상황, 가족 및 가구특성, 성과 혼전동거에 대한 태도에 따라 미혼남녀의 결혼의향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성, 교육수준, 연령, 취업여부, 현재 거주형태, 성과 혼전동거태도 등에 따라 결혼의향의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이 연구에서 고려된 모든 변수를 통제한 상황에서도 남성에 비해 여성의 결혼의향은 낮게 나타나고 있다. 이 같은 남녀간 차이는 결혼에 따른 혜택과 비용이 남성과 여성에게서 다르게 인식됨을 의미한다. 과거에 비해 양성평등적인 결혼생활과 부부관계가 추구된다 할지라도 결혼으로부터의 혜택은 남성에게, 그 비용은 여성에게서 높은 것으로 이해된다(김두섭 외, 2005).

미혼남녀의 결혼의향은 공통적으로 현재 연령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나이가 많은 미혼일수록 결혼할 의향을 가질 확률이 낮게 나타났으며, 특히 여성의 경우에 연령과 결혼의향과의 관계가 두드러졌다. 이 같은 결과는 결혼에 있어서 연령규범이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 특히 여성에게서 중요하게 받아들여지고 있음을 보여준다(은기수, 1995). 연령이외에 결혼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은 남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미혼남성들의 결혼의향은 교육수준과 취업상태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인다. 비취업 미혼남성에 비해 취업 미혼남성의 결혼의향이 더 높은 것은 남성들에게 자립적 경제수단의 확보가 결혼의 전제조건임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준다(은기수, 1995).

미혼여성들의 결혼의향에는 교육수준과 취업상태의 영향이 발견되지 않고, 대신 현재 독립가구에 거주하는지 여부와, 성과 혼전 동거에 대한 개방적 태도 등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인다. 취업상태가 경제적 기반을 나타내는 지표라고 간주하였을 때 여성들의 취업과 결혼의향이 유의미한 관계를 보이지 않는다는 점은 흥미롭다. 이러한 결과는 여성의 취업이 경제적 자립능력

3) 물론 혼외출산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겠지만, 공식통계로 집계되지 않을 뿐 아니라 사회조사를 통해 정보를 얻기도 어려운 실정임으로 그에 대한 분석은 쉽지 않다.

을 향상시켜 여성이 결혼으로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안녕이라는 혜택을 감소하기 때문에 결혼가능성이 낮아질 것이라는 경제자립가설과 상반되는 것이다. 한편, 이 결과는 경제자립가설에 대한 반증만큼 강하지는 않으나, 여성취업이 경제적 자원을 증가시켜 오히려 결혼의 경제외적 동기나 배우자로서의 매력을 증가시켜 결혼에 이르게 하리라는 경력진입모형과도 거리가 있는 것이다. 미혼여성에게서 취업과 결혼은 어떤 관계를 가질 것인가에 대한 보다 깊이 있는 논의와 연구가 요구된다.

부모와 떨어져서 독립가구에 사는 것 또한 미혼남녀의 결혼의향에 차이를 보이게 된다. 즉 미혼남성에게서는 단독가구 거주가 결혼의향과 무관하지만, 미혼여성들에게서는 결혼의향을 낮추고 있다. 이는 미혼남녀에게서 단독가구형성의 의미와 과정의 차이를 반영할 수 있다. 즉 미혼남성들은 교육과 직장으로 인해 부모와 떨어져 사는 것이 보편적이라 볼 수 있으나, 미혼여성의 경우에는 많은 제약이 따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립가구를 형성하는 미혼여성들은 부모의 영향력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울 수 있다. 또한 이들은 자신들의 경제적 기반을 어느 정도 확보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들은 개인주의적 선택에 따른 결혼을 강조할 가능성이 높다. 성과 혼전동거에 대한 태도 또한 남녀간에 차이를 보이는데, 미혼여성들의 경우 이에 대해 개방적인 태도를 가질수록 결혼의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미혼남자들이 성관계 및 혼전동거를 결혼과 구분해서 생각하는 반면, 미혼여성들내에서는 이 두 가지를 연결하여 생각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상의 결과들은 미혼남녀들의 경제상황, 거주형태, 성과 혼전동거에 대한 태도 등이 결혼의향에 미치는 영향은 남녀에 따라 다르게 작동함을 보여준다. 이는 다시 결혼수준과 결혼행태에 대한 이론적 논의와 경험적 연구들 또한 남녀간 차별성에 대하여 주목하면서 전개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또한 여성의 경우에도 취업상태를 포함한 경제상황이 결혼에 대한 전망과 결혼으로의 이행에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영향을 준다면 어떤 기제를 통해서 영향을 줄 것인지를 고민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참고문헌

- 김두섭, 김정석, 송유진, 최양숙(2005), 《가족구조와 관계의 변화 및 전망》
경제 인문사회위원회 협동연구총서 05-07-05
- 김태현, 이삼식, 김동희(2005), 《출산력 저하의 원인》 고령화및미래사회위원회
총서 10
- 은기수(1995), “결혼으로 이행에 있어서 연령규범과 순서규범” 《한국인구학》
18(1): 89-117
- _____(2001), “결혼연령 및 결혼코호트와 첫출산간격의 관계” 《한국사회
학》 35(6):105-139.
- Becker, G. (1981), *A Treatise on the Family*,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Blau, F. D., Kahn, L. M., and Waldfogel, J. (2000), “Understanding Young
Women’s Marriage Decisions: The Role of Labor and Marriage Market
Conditions,” *Industrial and Labor Relations Review* 53(4):624-647
- Casper, L. M. & Bianchi, S. M. (2002), *Continuity and Change in the
American Family*. Thousand Oaks, CA: Sage Publication.
- Cherlin, A. J. (2004), “The Deinstitutionalization of American Marriage”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6(4): 848-861
- Coontz, S. (2004), “The World Historical Transformation of Marriage”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6(4): 974-979
- Diekmann, A., & Engelhardt, H. (1999), “The Social Inheritance of
Divorce: Effects of Parents’ Family Type in Postwar Germany,”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64:783-793
- Goldstein, J. R. & Kenney, C. T. (2001), “Marriage Delayed or Marriage
Forgone? New Cohort Forecasts of First Marriage for U.S. Women,”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66(4):506-519.
- McLanahan, S., & Bumpass, L. (1988), “Intergenerational Consequences of
Family Disruption,”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4:130-152
- Oppenheimer, V. K. (1997), “Women’s Employment and the Gains to
Marriage: The Specialization and Trading Model,” *Annual Review of*

- Sociology* 23:431-453
- _____ (1988), "A Theory of Marriage Timing,"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4:563-591
- Retherford, R. D., Ogawa, N. & Matsukura, R. (2001), "Late Marriage and Less Marriage in Japan" *Population Development Review* 27(1):65-102.
- Seltzer et al. (2005), "Explaining Family Change and Variation: Challenges for Family Demographer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7(4): 908-925
- Shostak A. (1987), "Singlehood" in M. Sussman & S. Steinmetz (eds.) *Handbook of Marriage and the Family* (pp. 355-368) New York: Plenum.
- Sweeney, M. M. (2002), "Two Decades of Family Change: The Shifting Economic Foundations of Marriage"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67(1):132-147
- Yu Xie, Raymo, J., Goyette, K. & Thornton A. (2003), "Economic Potential and Entry into Marriage and Cohabitation" *Demography* 40(2): 351-367